

초의선사 <동다송> 31년 원문 새긴

# 대흥사 '동다송碑' 제막



초의선사의 다서 <동다송>을 새긴 '동다송비' 제막식이 8월 11일 해남 대흥사에서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문산)에 우리나라 최고전인 <동다송(東茶頌)>을 새긴 '동다송비'가 세워졌다. 대흥사와 명원문화재단,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11일 대흥사 앞 뜰에서 동다송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동다송>은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가 대흥사 말사인 일지암에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차의 우수함과 찾기를 따는 일부터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제막된 동다송비는 가로 8m, 세로 3m로 바탕돌과 지붕돌을 화강석으로 올리고 검은 돌에 31송(頌)의 원문과 비석 건립

의 의의를 새겼다. 문산 스님은 "동다송에 담긴 초의선사의 다도 사상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져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다송비 건립 후원을 맡은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다송>을 통해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명원문화재단 이승원 회장, 이영호 국회의원, 정화권 해남 부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령 기자

# 해탈하면 생로병사 고통 사라질까?

## 월정사서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 개최

###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등 주제 발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정)는 '생로병사와 해탈(解脫)'을 주제로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정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생사관과 해탈'에 대해 "불교에 있어 근원적인 생명이란 일시로 가환된 생사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생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법을 깨고,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통해 생사를 초월한 불생불멸의 중도(中道)를 돌파해 들어감으로써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상가 티라카르타네 교수(스리랑카 켈라 나대학)는 '상좌부 불교에서 생사(生死)의 고(苦)와 그로부터 해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에서 열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와 우리를 결합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탈'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화와 해탈을 통해 진정으로 얻어지는 행복한 마음 상태가 곧 '열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아상가 교수는 "부처님이 '고(苦)'를 강조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통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를 주제로 발표한 애니 사피로 교수(미국 나로파 대학)는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보인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한 뒤, "이 책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죽음 연구가이드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로 읽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이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책은 우리에게 사후 세계의 참된 성격을 파악하고,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수행하는 길을 제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병조 교수(경북대)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강 교수는 '성철 스님의 고의 아닌 거짓말'이라는 논문을 통해 "성철 스님은 죽은 사람에게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교수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나 보살 사상은 석가모니 사후 400~500년이 지난 후 생긴 대승불교가 힌두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성철 스님이 말한 영혼이나 전생 기억, 차시환생(轉生) 還生, 죽은 이가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가는 것' 등은 근거(根據)가 낮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 분교별 토론에서 임승택 교수(경북대 철학과)는 '불교적 윤회론의 가능성'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적 윤회론은 세속적인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을 망라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완성과 사회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수형자孝悌지공모 당선작 발표

육원 대성사(주지 혜월)가 주최한 '제2회 전국 수형자 효 편지 공모전'에서 청주여자고교도소 김모씨가 최우수상에 당선됐다.

대성사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51개 교도(구)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효 편지 공모전에는 230여 편의 편지와 수필, 신행서 등이 접수됐다. 심사위원회는 9일 심사회의를 열고 김씨의 '내겐 너무 무거운 사람 아버지께'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혜월 스님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시상한다. 대성사는 수상작과 출품작을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 연꽃마을, 진신사리 친견법회

사화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용인 영화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1주일간 매일 오후 1~5시 사이에 부처님 정골사리와 목련존사 사리, 나한존사 사리 등이 공개된다. 사리는 전사가 끝난 후 9월 개원 예정인 파라밀재활병원 법당과 탑에 봉안될 예정이다. 전사가 화형되는 8월 27일에는 영화사에서 백중법회와 예불의식이 진행된다.(031)671-3677

### 보광전·요사채 낙성식 개최

남해 망운암(주지 성각)은 9월 9일 오전 11시 망운암 경내에서 만공불사 및 보광전과 요사채 낙성식을 개최한다. 성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중명법사로 봉행되는 이번 낙성식에서는 망운암 주지인 성각 스님의 '선(禪)서화 특별전'과 '불자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도 마련된다. (055)863-3095

### 법주사, 응향각 상량식 봉행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8월 13일 응향각 상량식을 봉행했다. 법주사는 축조 100년이 넘어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응향각을 해체·보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응향각 보수 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법회에서 도공 스님은 "대웅보전 관리를 위해 지어진 응향각이 100여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퇴락해 재건축을 발원하게 됐다"며 "불자들의 인연으로 불제자들이 강론하고 수행하는 승원(僧院)을 건립하는 불사가 원만히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혜월 대전총부지사장

###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 광복절 기념 평화기도회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각 종교 지도자들이 뭉쳤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임의정)는 8월 14일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광복 62주년 기념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정여 스님은 "광복 62주년을 맞이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종교의 화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마음이 되어 통일 조국을 이루어 내는 것이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성수 천도교 도훈은 "공평관중주의, 빈부격차, 획일주의, 생태계 파괴 등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광복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던 화합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광복의 그 날처럼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조계사 "생명나눔 운동 함께해요"

## '뇌사·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1호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임면 스님(오른쪽)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왼쪽)이 '생명나눔 함께해요 1호점' 현판식을 마친 후 생명나눔 사상을 함께 펼쳐 나가자며 악수를 나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임면)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를 '생명나눔 함께해요 1호점'으로 지정하고 8월 13일 현판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7 뇌사·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1000'

은 전국의 사찰이나 기업·가게 등 100곳을 선정, 소식지와 모금함을 비치해 장기기증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1000명의 장기기증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구하는 '2007 뇌사·조직기증 희망 릴레이 1000'

여수령 기자

## 中 엔지 수월정사 개관식 연기

### 사전 허가 못 받아 내년으로

9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엔젠(延津) 엔지(延吉) 수월정사 개관식이 중국 당국의 사전 종교집회 허가를 받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온 수월정사(水月精舍, 엔젠조선족자치주불교협회관)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승인 수월 스님(1855~1928)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엔지 시내에 24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매입하면서 개관에 급물살을 탔다. 현재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9월 9일 개관식과 함께 불상과 수월 스님 영정 봉안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대규모 종교집회의 경우 당국에 사전 집회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해 중국 종교국으로부터 행사 연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화 스님은 "개관식은 내년 6월경으로 미뤄졌지만, 오는 10월 중 불상 봉안을 마치고 지역민을 위한 법회 등의 활동은 시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일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수월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연변수월선사추모사찰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모사찰 건립 및 불상봉안을 위한 모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02)511-6070

여수령 기자

##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 1. 개설취지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 의식과 수행적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 2.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



과정	기간	요일	내용	지도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분, 여름 가을, 겨울 사찰음식	정산스님 외 교수진

### 3. 개강일시 : 9월 4일 (화) 오후 2시

## 불교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 1. 개설취지

"불교와 차, 차와 선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선일미라는 말이 많이 하는데, 불교와 차 중 어느 하나만 잘안다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의 생활화와 다선(茶禪)의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이를 통해 불교 포교사 다인을 양성하고자 개설합니다."

### 2.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



과정	기간	요일	내용	지도교수
포교사	3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차, 중국차 일한차 등	오양가교수
법사	2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대관다론, 다경	김진숙 교수

### 3. 개강일시 : 9월 4일 (화) 오후 2시

##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과	교과목	과정	개강일시
불교학과 (2년)	·법화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 과목	정규반, 통신반	현재 접수중
불교한문학과 (3년)	·주역, 설문해자, 중국고전, 한국고전, 불교경전	정규반, 통신반	9월 6일 (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 (2), 한국의 현대차	정규반	9월 4일 (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	·불화기법, 사불, 단청, 어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정규반	9월 4일 (화) 오전 10시
불교경제문화학과 (2년)	·장계학개론, 장계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정규반	9월 4일 (화) 오후 7시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규반	9월 4일 (화) 오후 2시

학과	요일	개설경전	교수	개강일시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김형준 교수	9월 10일 (월)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일보리행론	양승규 교수	9월 4일 (화) 오후 7시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 해석본 금강경④	최봉수 교수	9월 6일 (목) 오후 4시

과정	기간	요일	법사	내용	개강일시
토요일반	2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만훈스님, 문중순 법사	이론·실기	9월 8일 (토) 오후 4시 30분
법패반	2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인각스님	실기	9월 7일 (금) 오후 3시



불교교육 전문도량

##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